



미·이란 교전 재개
(지정학적 리스크)



유가 90불 돌파 및
국채 금리 급등



웰스파고·JP모건
9월 조정 신중론



2026년 9월 2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

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압박 속,
반도체·안전자산 중심의 옥석 가리기
반도체·안전자산 중심의 옥석 가리기

ACTION REQUIRED: 현금 비중 확대 및 에너지/금 피난처 확보, 코스닥 변동성 대비 필수 >>

매크로 진앙지: 유가와 금리가 촉발한 악순환 사이클



\$90.30 (+2.9% / +\$2.62)

미·이란 교전 재개로 90달러 돌파.
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.



4.764% (+5bp)

FOMC 매파 기초 유지,
위험자산 최우선 압박 요인.



\$103,000 (+\$18)

변동성 장세 속 피난처 탐색 지속
(골드러시).

원/달러
₩1,445.00 (-5.30)

달러인덱스
0.5 (-0.32)

유로 강세로 달러인덱스는 하락했으나,
원화는 여전히 1,445원대 약세 지속.

지표의 착시: +0.00% 뒤에 숨겨진 장중의 발작

마감가 기준 완벽한 보합 장세 연출

S&P 500: 7,686.14 (+0.00%)

NASDAQ: 26,370.89 (+0.00%)

장중 나스닥 1.03% 하락 (미국채 금리·유가 급등 여파)



애플 급등 등 일부 1등 주식의 방어에도 불구하고, 소프트웨어주 중심의 강한 출렁임 발생.
1등 주식만 좇는 몰빵보다 분산 투자가 필요한 국면.

자본의 이동: 기술주를 이탈해 '방어와 현금'으로

DOW JONES: 53,185.90 (+1.32%)

- 주도 섹터: 부동산 (+7.42%), 에너지 (+2.00%)
- 특징: 유가 상승 수혜 및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.



NASDAQ: 26,370.89 (장중 1%대 하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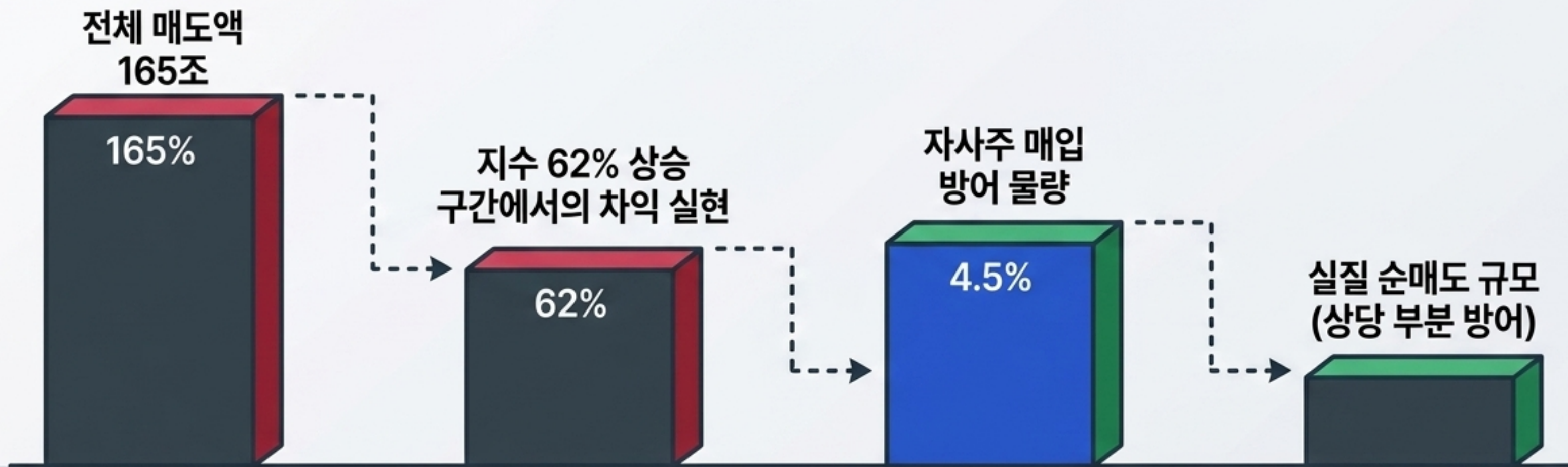
- 취약 섹터: 유틸리티 (-1.70%), 생활필수품 (-0.53%)
- 특징: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.

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행보 추적: 아시아 부호들의 주식 매도 및 구조화 채권 전환 등 맞춤 일임 쓸림 현상 뚜렷. 해외주식/외화증권 467억 달러 순유입 중 대다수가 AI, 반도체, 방산, 금으로 집중.

코스피 수급 팩트체크: 외국인 165조 매도는 '셀 코리아'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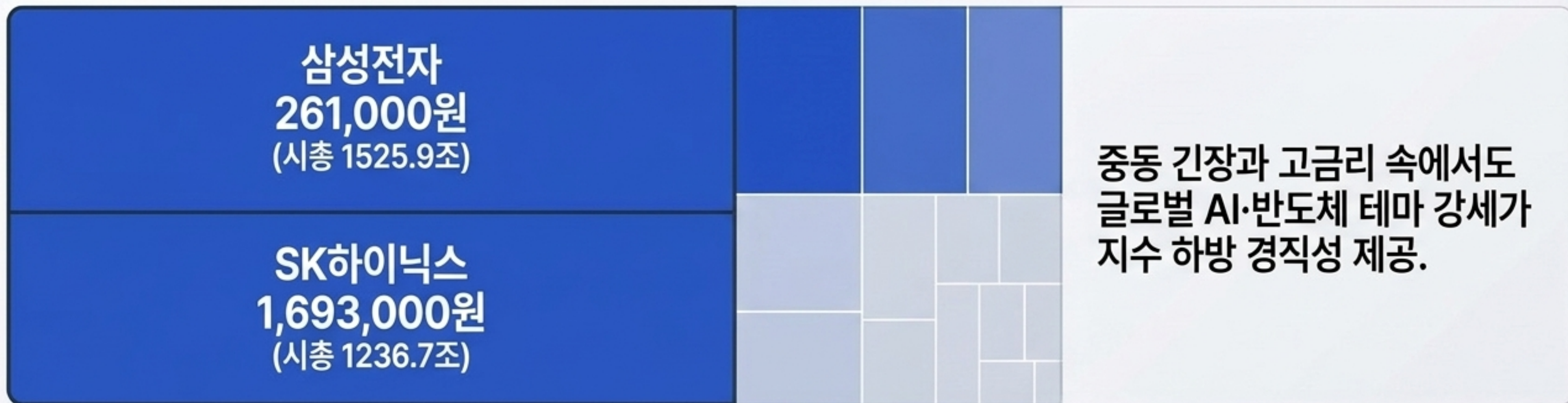
KOSPI 6,835.80 (+0.00%)
- 중동 긴장 속에서도 6,800선 강력 사수.

단순한 이탈(Sell Korea)이 아닌,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.



- 현재 매도세는 둔화되었으며, 지수는 횡보 국면 진입.
- 개인·외인·기관이 떠난 빈자리를 기업들의 '자사주 매입'이 효과적으로 방어 중.

코스피 방어선 구축: '투톱'의 귀환과 섹터별 명암



WINNERS



인플레 헷지 및 경기 방어 성격.

LOSERS



금리 인상에 직접적으로 취약한 인프라 붕괴.

코스닥 위험 신호: 투심 악화와 ETF 변동성 폭발

INDEX DROP PANEL

KOSDAQ: 821.25

(장부상 +0.00%이나,
실질적 이틀 연속 하락세)

- 외국인 및 기관의 동반
'팔자(Sell)' 기조 확산.

**레버리지 ETF
5%대 급락**

중소형 기술주 중심의
상승 베팅 자금
대거 이탈 및 손절매.

**인버스 ETF
3%대 상승**

하락 방향으로의 베팅 및
헤지(Hedge) 수요 급증.

코스닥 시장은 KOSPI의 대형주 방어막이 부재하여,
고금리 및 매크로 불확실성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. 중소형 성장주 비중 축소 요망.

9월 변동성 장세 대응: 3대 핵심 관전 포인트 및 액션 플랜

Macro & FICC (금리 방어)

미 10년물 +5bp 상승, 위험자산 압박 심화

**현금 비중 확대 및
금리 헤지 전략 필수**

방향성 베팅을 멈추고
변동성 관리에 집중하라.

Commodity (에너지와 환율)

WTI 90불 돌파, 원/달러 약세(1,445원)

**에너지 ETF 및
원자재(금 등)
현물 매수 기회 탐색**

지정학적 리스크
헷지 수단 편입

Equity (포트폴리오 리밸런싱)

나스닥/코스닥 약세 vs 다우/코스피(반도체) 선방

**방어주(다우 중심) 및
대형 반도체 편입,
코스닥 레버리지 축소**

인버스를 활용한
단기 헷지 고려